

투데이 칼럼

협상의 스피치기법

‘협상’ 하면 우리는 흔히 외교, 정치, 비즈니스 협상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협상의 연속이다. 집을 구입하는 것,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하는 것, 연봉 조정하는 것, 애인에게 결혼 승락하는 것 등도 협상에 속한다. 문제는 협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낮고 기법도 약하다는 것이다. 보통은 감정에 치우쳐 가격 흥정하다가 짜증나면 ‘안 사고 말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면서 포기한다. 문제는 협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낮고 기법도 약하다는 것이다. 보통은 감정에 치우쳐 가격 흥정하다가 짜증나면 ‘안 사고 말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면서 포기한다. 또한, 협상의 기본은 너무 쉽게 ‘예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란 묘한 것이어서 원하던 것을 너무 쉽게 얻어도 그것을 의심하게 된다. 사무실을 너무 싸고 쉽게 구하면 돌아서서 의심하게 되고 연인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승낙한 여성들도 간혹 고만에 빠진다고 한다. 쉽게 허락해서 남자가 자신을 결혼에 환장한 여자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뭘든 어렵게 얻어야 더



김양욱

전주교육대 평생교육원 교수

욱더 귀하게 여기며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법이다. 협상이란 어디까지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그것이 협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중년의 부부가 오랜만에 여행계획을 세웠다고 해보자. 아내가 온천에 가자고 남편은 스키를 타러 가자고 한다. 아내는 온천에서 피로를 풀겠다는 것이고 남편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스키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방법으로 알아보자. 첫째, 대안을 찾는다. 둘 다 만족하기 어렵다면 서로 포

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등산이나 조용한 휴양지를 산책하는 등의 방법을 찾는다. 둘째, 포기하는 상대방에 대가를 지불한다. 온천에 안가는 대신 쉼소에 아내가 입고 싶었던 코트를 사주는 것처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셋째, 순서를 정한다. 이번에 스키장을 가면 내년에는 온천에 가는 식으로 시간의 차이만 날 뿐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전략이다. 넷째, 서로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다. 스키장 근처에 온천이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낮과 저녁에 서로 효과

적인 윈윈의 협상전략이다. 이처럼 협상은 서로의 만족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자 카네기는 침대열차 사업으로 상대 풀만이란 사람과 가격 경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둘 다 이익을 볼 수 없는 지경에 놓였는데 어느날 카네기는 “풀만! 우리 서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니 풀만은 “글쎄요”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카네기는 서로 반복하지 말고 회사를 설립할 뜻을 보이고 새 회사의 이름을 “풀만 팔레스타인회사”로 할 것을 제안하여 서로 협상이 되었다고 한다. 협상이란 서로를 설득시키고 서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결국은 협상은 서로 이기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해보면 효과적인 설득이 되는 것이다. 협상은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이해를 요청해 나가는 고도의 스피치 기법인 설득력을 발휘하는 학습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자.

독자제언

도로 위 보행자를 시수하라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듯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 의무는 갈수록 커지고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일로 이번에 개정된 법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행자 보호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 개정 법률이 금년 7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첫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셋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 차이에 우선하도록 개정된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넷째, 도로 외의 곳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보행자도 이에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보호권만 만으로는 안전이 담보된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무단횡단이나 보행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이어폰·스마트 폰 사용 등은 금지해야 할 일이다. 우선적으로 코앞에 다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운전자는 차분히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수용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보행자를 내 부모·형제처럼 여기고 보행자를 보면 서행·일시정지 습관을, 보행자는 안전보행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지켜 나간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은 없을 것이다. 양은욱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젤렌스키 “러시아 만행 조사해 국제사회에 알릴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연설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부처에서 최소 3백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고 민간인 학살을 투명하게 조사해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문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민들이 직접 고향 기부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와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징은 기부 주체를 출생지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부 대상도 고향 즉 주민등록상 출신지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시군에서는 도내 시·군 주민은 물론 전라북도 외 출향민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라북도는 도외 주민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도내 시·군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도외 출생민이 우선 시군에 납부하고 추가적인 납부를 전라북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 지역 특산물 세트,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지역 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처 협동으로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적 준비도 중요하다. 먼저 농어민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지역 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고향사랑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추진은 단기간으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부자를 향후 전북 이주로 유도하는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북고향사랑기부금의 별도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에 나설 때이다.

군산 백석제 문제

군산 백석제를 둘러싼 환경 보존 논란이 여전하다. 군산시는 의료시설 부족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이곳에 대형 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2010년 전북대 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백석제를 전북대 병원 부지로 결정했다. 논란은 백석제에서 독미나리와 양버들 등의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백석제는 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희귀 습지 식물을 포함해 6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조류가 관찰됐다. 결국 이곳은 병원 부지로 낙점됐다 개발이 무산됐다. 그 뒤 백석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업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군산시는 옥산면 담북리 일대 백석제 13만4965㎡에 대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방 및 생태교육 공간 등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백석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이 크게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군산 백석제는 1930년대 축조된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였으나 현재는 토사가 쌓여 사용되지 않는다. 백석제 습지에는 북방계 멸종위기 식물인 독미나리와 각시수련, 남방계 멸종위기 식물인 물고사리 등이 분포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독미나리 개체가 2만 개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독미나리 군락지로는 최대 규모다. 2014년에는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양푼사초 군락이 발견되었다. 2015년에는 물고사리 개체가 6만 개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군산 백석제는 멸종위기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한다는 특이성으로 인해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백석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다.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백석제가 시민의 친수공간이자 생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습지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